

2) 재배와 수확

쪽은 중국·인도·한국·일본 등 동남아시아지역이 원산지이다. 기후가 온화하고 다습하며 배수가 잘되는 건사질 토양에서 성장하므로 우리나라 중남부지역의 밭에서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식물이다. 또한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것에서 양질의 염료를 얻게 되므로 비료를 많이 주는데, 성장에 필요한 질소성분이 필요하다. 형태는 높이 60~70cm 이고 홍자색이 돌며 잎은 어긋나고 잎자루가 짧으며 긴 타원상피침형, 긴 타원형 또는 난형이고 양끝이 좁다. 마르면 검은 빛이 도는 남색이고 집 모양의 턱잎은 막질이고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

씨는 3월 중순경 묘판에 파종하면 약 2개월 정도 지나 15cm 가량 자라는데 이때에 본 밭에 이식해야 한다. 이식할 때의 간격은 약 20cm 가 좋고 이식 후 약 보름이 지나면 양면(養眠)이 되어 잎이 싱싱해지는데, 이때 이랑을 지어 거름을 준다. 거름은 질소비료나 인분을 주며 그후 20일 간격으로 두세 차례 더 시비를 한다. 7월 하순이 되면 키는 60~70cm 정도에 달하고 줄기는 마디가 생기고 홍자색을 띠며, 미끈하게 곧으면서 지엽이 많이 난다. 8월 초순이 지나면 홍색의 작은 꽃들이 밀착하여 길게 이삭형을 이루며 핀다. 꽃이 피어 지기 전에 베어야 하기 때문에 9월 초순까지 거두며, 일부는 밖에 남겨 다음해에 파종할 씨를 거두는데 이 시기는 9월 하순경부터 10월 초순경이다. 식물체가 마르면 씨가 자연적으로 떨어져버리므로 마르기 전에 멍석에 널어서 씨를 채취한다.